

미국 흰불나방 유충의 습격...가로수 수천그루 고사 위기

잎사귀 닳치는대로 갉아먹어 '가로수 킬러'...광주 7천여그루 피해 1년 두차례 발생하다 고온다습한 올해 세차례 번식해 개체수 폭증 전문가 "구충제 방제 시기 놓쳐 확산" 지적 속 적극적인 방제 나서야



▲ 미국흰불나방

지난 1958년 한국에 유입된 외래종으로, 유충일 때 가로수나 활엽수 등 여러 나무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유충은 검은 몸체에 흰 털이 난 것이 특징으로, 도심 가로수나 공원, 하천변 인근에 서식하며, 한 나무에서 동시에 수백마리씩 부화해 나뭇잎 맥만 앙상하게 남겨놓아 광합성을 방해해 가로수를 고사시킨다. 어릴 때인 1-3령기에는 실을 토해내 잎을 둘러싸고 그물망을 만들어 군집생활을 하다가 4-5령기에 집에서 나와 흩어지는 특성이 있다.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 한 나무를 고사시킨 뒤 다른 나무로 옮겨가 피해를 준다. 성충 한 마리당 600~700여개의 알을 낳으며, 유충은 한 마리당 100~150cm의 잎을 갉아먹는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뿐 아니라 신체에 닿았을 경우 피부병이나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수 킬러'로 불리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폭증해 광주지역 가로수 수천그루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변에는 노랗게 말라 죽은 나무들이 수십그루 늘어서 있었다.

이들 나무에는 잔가지 하나하나마다 하얀 털이 달린 유충들이 들어앉아 잎사귀를 닳치는대로 갉아 먹고 있었다. 유충이 거미줄처럼 실을 토해내 만든 그물망도 가지 곳곳에 흉측하게 남아 있었다.

나무에서 떨어져 산책로나 다리 난간 등에서 기어다니는 유충도 적지 않았다.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유충이 꽤 많이 들어선 나무를 보고 놀라거나 산책로를 기어다니는 유충을 피해 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유충은 동구 학동 양림교 일대부터 북구 임동 켄 피언스필드 인근까지 퍼져 있어 줄잡아 피해를 입은 가로수만 100여그루가 넘어 보였다. 같은 날 광산구 신장제, 풍영정전,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지에서도 "벌레 떼가 공원에 퍼졌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다.

미국흰불나방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잇따랐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는 가로수 7632그루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서구에서만 7285그루가 고사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 2019년에는 3만 1000여그루가 피해를 입을 만큼 개체수가 폭증했으나, 2020년부터는 광주 시에서 별도의 집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량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한 탓에 지난 8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병해충 발



4일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변의 나무가 미국흰불나방 유충 피해로 고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생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국흰불나방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통 1년에 두 차례 발생하는 유충이 올해는 9월 들어 벌써 세 번째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미국흰불나방은 당초 3-5월, 8-9월 두 차례 발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전남 지역에서는 세 차례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올해는 8-9월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미국흰불나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장마(6월 25~7월 26일)기간 광주에 1102.5mm의 비가 내려 역대 장마철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평균 강수량도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65.5mm로 집계됐다.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24.2도)보다 0.8도 높았다.

가로수 관리 주체인 광주시 5개 구청이 방제를 제 때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미국흰불나방은 아직 어릴 때인 1-2령기 유충일 때 방제해야 효과적이다. 친환경 농약 등 약제를 유충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이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유충이 그물망에서 빠져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방제 효과가 낮아지게 마련이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중태 나무병원 원장은 "9-10월 늦은 시기 유충이 잎을 죄다 먹어치우면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한 양분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결국 고사하거나 내년 봄꽃도 피우지 못하게 된다"며 "7-8월부터 조기에 방제를 해야 해야 하는데 적기를 놓쳐 결국 재창골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인 방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iyoo@kwangju.co.kr

광주·전남 마약사범 급증...올 상반기 1923건

광주 사범기관의 마약검정 결과 올 상반기에만 1923건이 양성판정을 받을 정도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전

남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2475건의 마약검정이 의뢰 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마약검정 의뢰 건수는 4102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의뢰건수 중 46.9%(1923건)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서 마

약 중독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두 곳 뿐이며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4곳이 있으며 광주는 광주시립정신병원, 전남은 국립나주병원이 있다. 마약사범의 치료는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할 경우 또는 환자나 가족이 자의로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대인 기자 kdi@

법원 "기초수급자, 타인 자동차 상시 운행 땐 재산에 포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상시 운행하면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순천시 모 아파트에서 사실상 배우자 B씨와 거주하면서 1인 가구로 신고하고 B씨 명의의 K9 승용차를(배기량 3300cc, 차량가액 2454만원) 평소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생계, 주거 급여를 신청해 기초 생활수급비 25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생계·의료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를 보유해야 수급권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교육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

(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를 보유해야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B씨는 사실상 배우자가 아니며 B씨 명의의 자동차를 허락받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로 사실혼에 해당해 2인 가구로 신고 해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마음대로 쓰라고 키를 줬 A씨가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운영하였음에도 재산신고에서 차량을 누락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년간 친딸 성범죄 '나쁜 아버지' 구속기소

10년 동안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4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광주가정법원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 동안 B(13)양을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지난 7월 29일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B양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조사한 결과 10여년에 걸쳐 지속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광주시 남구와 광주남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B양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이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